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협동회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철	President	Chung Kim Lee
주필	김창환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46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4월 22일 금요일	Issue No.	1745
		Date	June 6, 1969: Fri.

미국정부요인들이 님순대통령에 수행

(코로라도주 모토라도 수주팅 6월4일밤, 중동) 님순대통령은 4일, 미국 모토라도주 모토라도 수주팅의 미공군사관학교졸업식에서 연설한후, 가주 새크라멘토의 별장에 향하여, 7일에 귀환. 반.우남비에트남대통령과의 미드웨이도의 회담(8일)에 참석하기 위해 호놀룰루에향해 출발한다. 미드웨이 회담은 6시간에걸쳐서 행하여질 예정인데, 미국측으로부터는 타자.스국부장관, 페아드 국방장관, 랫지.파리 회담수석대표, 반.우남비에트남주재대사, 에이부람남비에트남원조미군사령관등이 님순대통령에 수행한다.

남비에트남외상, 미드웨이 회담후에 일본방문

(사이곤 6월4일밤, 에이피) 남비에트남외무성이 4일 발힌하에의하면, 남비에트남의 찬.찬.단 외상은 8일에 미드웨이도에서 거행되는 님순대통령과의 회담에 동석한후, 일본을 방문하고, 9일부터 시즈오카현 이도시하와나에서 열리는 아세아태평양협의 회차료회의에 참석한다.

타자-스, 아이지 외상 첫 회담

미국, 일본 안전보장조약의 자동계속에 양해

(와싱튼 6월4일밤, 중동) 아이지일본외상과 타자-스미국부장관과의 첫 회담은, 3일오후 국무성에서 거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아이지 외상은 현행일기안.보조약에대해서 6월이후에도 자동연장으로 계속한다는 미국측의 양해를 얻었다. 이 위에서 오기나외반권을 현행안보조약의 규정내에서 일정의 방식으로 처리할것을 기초로, 금후 교섭할것에 합의하였다. 자동연장문제는 공식으로 내는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아이지 외상은 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 "다시 새삼스럽게 말한 필요는 없으나, 공식의 의제에안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양해되었다고 본다" 라고 말하였다. 이날의 회담에서 타자-스장관은 일본의 오기나외반권요구에대해서 미국은 급년중에 적절하고 만족할수있는 해결책을 내놓고싶다 라고 말하였다. 또 님순대통령은 오기나외반권에서 합의를 성립시키면, 핵병기를 오기나외로부터 철거할것을 이미 결정하고있다는 3일부의 뉴욕.타임스지 보도에대해서 타자-스장관은 중지의 보도는 정확지않라라고 말하였다고한다. 회담에서 아이지 외상은 일본의 태도전반에대해서 설명하고, 72년까지 오기나외의 시정권이 반환될것을 열망하고있다는 일본측의 의향을 정식으로 전하였다. 또 일본이 핵병기에대해서 중오의 감정을 가지고있는것에 미국은 주의하도록 요청하였다.

(제 1 면)



절단된 미국 구축함의 수색 중지 행방불명지-중에 드형제도 포함

(필.하-바 6월4일밤, 에이피) 미해군은 6월3일 남지나해에서 오-스트레리아 항공모함 펠본호와 충돌, 절단된 미국 구축함 에반스호의 승무원의 수색을 중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피해는 사망1명 행방불명 73명, 승무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행방불명자는 항정반부에서 자코스톤 자들이라고 한다. 하이랜드미태평양함대사령관은 주에부트르자전과 같은 사본회의를 조직조직하였다. 해상에 떠있는 에반스호의 장미부분은 비술비에 그려갔다. 또 199명의 생존자중 중상자는 간단만에 공중수송되고, 단사들은 항공모함 캐서-지호로 비술빈의 스텔란에 향하도록이다. 캐서-지호에서는 출발전에 해상에서 위령식이 거행되었다. 또 갑수를 대폭파괴당하고, 비행갑판에도 손상을 입은 펠본호는 수리때문에 싱가포르로 향하였다.

네부라스카주 출신 3형제

3일이래 미국방성에서는 에반스호의 사망.행방불명자의 명보가 발표되어있는데, 행방불명자중 세명의 형제가있는것이 판명되었다. 네부타스카주 나이오부테이라의 세이지형제, 제리 2등병조 (22세) 구메코리 3등 테이다사 (21세) 켈리 수병 (19세) 가 라고있었다. 또 가주의 로스라.메사의 로렌스.레이리 부자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레이리.씨니아병조는 살었는데, 아들의 레이리.주니아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오-스트레리아당국은 펠본호의 전방에있는 에반스호가 우회하였을때에 충돌이 일어났다고하는데, 미해군에서는 사고원인에대해서 관측을 미하고있다.

미국방장관이 조사를 발령

테아드미국방장관은 구축함 에반스호의 행방불명자에 세이지 3형제가 포함되어있었다는점에대해서, 4일 켈리국방차관에 각서를 보내고, 미군의 배속방침의 조사를 지명하였다. 동국방장관은 이각서중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배속에있어서, 동일가족의 병사가 같은 함선 또는 같은 부대에 배속되는일이업도록 방침을 변경하는것이 필요한가를 조사하고, 15일7까지 보고와 권고를 제출하라"라고 명령하였다. 해군당국은 "형제가 같은 함선에 근무하겠다고 희망하고, 실행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방침이다. 세이지형제도 같은 배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였는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리상주의의 재생"을 호소 닉슨대통령, 공군사관학교에서 연설

(모토라도주 코모라도.스프링 6월4일밤, 에이피) "제군은 국외의 가상적이 전에업든 강력한것이며, 국내의 비판의 소리가 전에업드시 만들때에 굳임으로서 나스다" 라고 닉슨대통령은 4일 모토라도.스프링미공군사관학교의 졸업식에서 말하고, "국내문제의 해결이 선이고, 세계문제는 후이다"라고 주장하는 "신코립주의자"에대항하기 위해서 "미국리상주의의 재생"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들 신코립주의자는 근무에대한 공격의 조흔 시기를 마치하였다" 라고 말하고, 그의 단순한 주장은 중세를 살려하는 만은 남세자의 중정을 업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린다면, 미국은 위기를 면하지못하며, 세계는 중도의 생활을 보내야되게될것이다. 미국리상주의의야말로 현대에있서서의 기적을 성취하고, 평화와 정의의 세계질서를 가져온다" 라고 닉슨대통령은 말하였다. 대통령은 또 이연설중에서 "나는 방위력의 필요규모에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재촉을 받고있다. 금년 내가 권고한 항목의 몇개는 논의를 일으켰다." "우리는 일방적 군축을 배제하여야한다" 등의 표현을 썼다. (제3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그러나 비에트남전쟁, 대륙관도관동등의 문제에대해서는 실질적인 언급이 업섰다. 또 대통령은 졸업생에대해서 "공복을 입고잇는 사람도 제일로 시민이고, 제2로 군인인것이다" "약자가 할수잇는것은 애원뿐이다. 강자의 도량과 자제심이 도독적인 의지를 자아내는것이다" 등, 9항목의 "신조" 를 주었다.

불란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15일에

(파리 6월2일밤, 에이피) 1일에 거행된 불란서대통령선거는, 불란서본도에서의 개표결과 본도도 후보 (드골파) 가 43.95% 를 차지하여 최고점을 가지코 예상이상의 강력을 보이였다. 2위에는 보엘후보 (중도파) 도 33.44%, 3위의 듀크로후보(중산당)는 21.53%, 어느후보도다. 과반수를 차지하지못하였기때문에 15일에 1위, 2위의 존도도, 보엘 양후보간에 결선투표가 잇을것이다. 존도도후보의 득표율은 선거전의 세튼조사예의한 예상보다 만코, 1965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드골의 득표율 43.71%보다 만은 힘을 보였다. 이에대해서 보엘후보는 더러져서 인기가 업섰다. 존도도후보는 국민협조의 목적으로 결선투표를 사퇴하라고 보엘후보에 요청하였는데, "나는 그냥 사퇴할수업다" 라고 보엘후보는 거부하였다. 결선투표의 결과는 듀크로후보의 득표가 누구에게도 가느냐인데, 동후보는 선거연설중 "존도도와 보엘의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코메타와 페스드의 어느쪽을 선택하느냐와 흡사한것이다" 라고 말하였기때문에, 결선투표에서는 기권하도록 지지자에 요구할것으로보인다. 그러한 경우에는 존도도후보가 승리할것이다.

켄네디의원 남비에트남대통령을 비판

(뉴욕 5월31일밤, 에이피) 에드워드.켄네디상원의원은 31일 매사추세트대학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우리는 사이공의 대통령에게 한사람이나 두사람을 안락하게두기 위해서 서열과 구령령이에서 사사워오지안했느냐" 라고 추남비에트남대통령을 동열히 비판하였다. 켄네디상원의원은 추대통령이 닉슨대통령의 회명제안에 반대하고 한국, 대만,에서 리권공작을 하고, 회명에 파도를 노코 잇다고 비난하고, "추대통령이 회명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양보를 거부한다면, 누구의 원조도업시 자기의 장래에 직면하는 길을 선택하지안으면안될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최근의 비에트남 전쟁에잇서서의 미군의 손실에대한 자기의 발언에 언급하여 "나는 몇번이라도 발언할 작정이다. 이문제는 당파심으로 돌리기에 너무나 중대하며, 가만히 잇기에는 너무나 비극이다" 라고 말하였다.

다-크슨공화당상원원내총무 켄네디를 비난

(워싱톤 6월2일밤, 에이피) 다-크슨공화당상원원내총무는 비에트남의 "햄버-거 언덕" 공격을 "무책임하고 무의미" 하다고 비난한 켄네디상원의원의발언을들어, "켄네디의원은 미군지도부를 비판하고, 미군장병의 사기를 손상시켰다. 그가 그러케 전술의 대가라면, 비에트남에 날라가서 군지도부에 집안하든가, 닉슨대통령에 지금의 지도부를 사직시키도록 진언하여야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대해서 펜스윌드린쿠당상원원내총무는 "켄네디의원은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잇다" 라고 변호하였다.

베네즈에라 방문 결국무기연기

(트리니다도 포트.어브.스페인 6월2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특사로서 중남미제국을 2일째로 방문중인 랏키윌러.뉴욕지사의 일점은 학생들의 반대시 위도 최후까지 변경에 변경을 접쳤다.

(제3면으로부터 계속)

페루의 방문이 중지된것을 위시하여, 에쿠아돌에서도 시위를 갖나고, 볼리비아에서는 제재를 잘
계하였다. 2일, 최후의 반란지도 예정되었던 페레즈에라의 수도 가라카시에서도 폭력발생을
우려하고 가두데라. 베네즈엘라대통령이 방군의 무기연기를 요청하였다.

랏키웰러독사는 1일밤 프루트.어크.스테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점주적인 학생분자를 이용하는
제제릭이 폭력에의해서 미국과 각국과의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파괴시키려고하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미드웨이 회담에서 미군철병 발표 ?

(워싱턴 6월5일밤, 공동) 미국정부대변인은 4일, 닉슨, 추장대통령이 8일의 미드웨이 회의에서
첫번되는 미군의 입방적철병을 발표한다는 뉴욕.타임스보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만, 이대문
에, 이 회의가 이러한 발표를 이용하여, 미.남비에트남의 단결의 모양을 보이고, 화평공세를
강화하는 무대가된다는 관측은 일층 강하여지고있다.

동보도에의하면, 미당국자는 북비에트남의 상호철병에 용하지안트라도 남비에트남의 미군 54만중
약5만을 9월1일부터 1년7개월까지에 철퇴시킬 계획으로, 만일 적이 대공세에나오는경우에는, 철병을
중지할수있다는 구상이라고한다.

연립정권안을 남비에트남이 비난

(파리 6월5일밤, 에이피) 파리회담회의제20회본회의가 5일에 열려, 남남비에트남수석대표는
4천어에달하는 설명중에서 "연립정권" 안에 반대하는 태도를 강조, 또 "닉슨정권의 제안과 남
비에트남의 6항부제안의 생각은 같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드웨이 회담에관해서는 언급
하지안었다. 한편 라우 북비에트남자석대표의 발언은 닉슨공력에 중시하고, "닉슨대통령은 지금
존슨전대통령이상으로 신식민주주의의 목적을 추구, 비에트남전쟁을 격화시키고있다" 라고 말
하였다.

오기나와 미군이 노동조합 피켓트를 배제

(나하 6월5일밤, 공동) 5일아침부처의 전군노동조합에대함, 미군측의 태도는 강경하여, 연병동
무장한 미병이 군기지근처에서 파업을하고있는 자를 제외하고, 각지에서 전군노동조합원과 지원
노동원이 부상을 입었다. 또 사대당위원장의 아사또 집행원의원이 오전8시경, 나하시코의
육군제2병참부대의 문앞에서 총검을 가진 학생들을 쫓던 연병에 밀리어 손을 부상당하였다.

기지를사모도는 대중행동에서 집행원의원이 부상을 입은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류큐법의원,
인민, 사회의 여당3파는 동일야권, 아사또사대당위원장을 위시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부상당한
것을 중시하고, 즉시 항동의원총회를 열고 협의합결과, 이것은 오기나와인민에대한 미측의 무력
탄압이라고하고, 항의결의를 갖것을 결정하였다.

미국당국자 사태를 우려

(워싱턴 6월5일밤, 공동) 아사또사대당위원장부상사건에대해서 국무성당국자는 5일아침, "아직
그모호를 받고있지안다" 라고 논평을 하였다. 그러나 아사또의상과 타자.스쿠쿠장관의 최종
회담을 앞둔중, 이러한 충돌사건이 일어났것을 극히 우려하고있는 모양이다.

